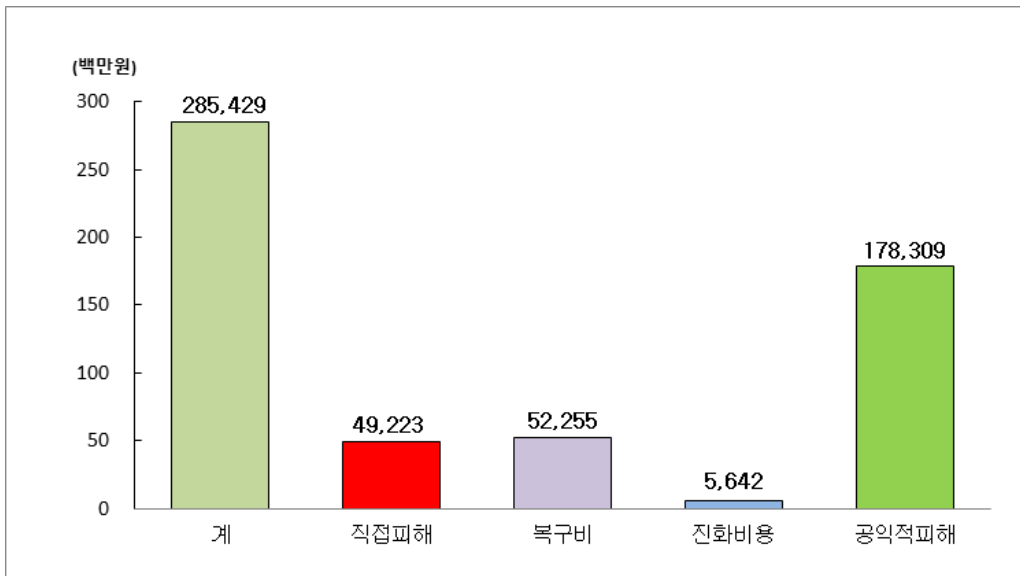


Q3

산불은 어떠한 경제적 피해를 주나요?

A 23년 기준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2억8,54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직접피해액은 4,922만 원, 진화비용이 5,642만 원, 복구비용이 5,225만 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산림의 손실로 인한 공익적 가치 피해는 1억7,830만 원입니다.

산림은 수원함양 ▲산림정수 ▲토사유출방지 ▲토사붕괴방지 ▲온실가스흡수 ▲대기질 개선 ▲산소생산 ▲산림휴양 ▲산림치유 ▲생물다양성보전 ▲산림경관 기능 ▲열섬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, 이를 통틀어서 공익적 가치라고 합니다.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59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국민 1인당 49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³⁾입니다.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공익적 가치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.



2023년 산불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

※ 출처 : 산림청 산불통계

3) 출처 : 김기동 등, 2023, 숲이 우리에게 주는 12가지 선물, 국립산림과학원